데스크시각

기 현 호

앙리(Henry)를 울려라

프랑스 잡아야 16강행

다시봐도 가슴설레는 2002년 한일월드컵 승리의 장면들. 이 중에 포르투갈전이 빠질 수 없다.

6월14일 저녁 7시45분, 포르투갈전이 열리는 인천 문학경기장 VIP석에 김대중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관중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DJ가 나타나면 이기기때문이었다. 김 대통령이 경기장에 나온 부산 폴란드전에는 승리했고 직접 관전하지 않은 대구 미국전은 무승부였다.

잠시후 경기가 시작됐고 격렬한 몸싸움과 접전이 이어졌다. 선수들이 토해내는 거친 숨소리가 그라운드에 가득한 후반 25분, 이영표가 페널티에어리어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렸다. 박지성이 가슴으로 공을 받아냈으나 약간 길었다. 오른발을 쭉 뻗어 콘세이상의 키를 넘겨 왼쪽으로 재낀뒤 그라운드에 볼이 닿자 마자 왼발 강슛을 날렸다. 공은 골키퍼의 가랑이 사이를 뚫고 그물을 갈랐다. 경기후 루이스 피구가 두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눈물을 흘리며 히딩크 감독의 가슴에 얼굴을 묻는 화면이 한국승리의 감동이 물결치는 사이로 비춰졌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플레이를 한다는 피구를 울린 주인공은 바로 송종국 선수였다. 피구를 꽁꽁묶은 그가 이날 한국승리의 실질적인 주역이었다. 송종국의 철저한 연구와 준비가 거둔 결실이었다.

송종국은 경기 1개월전 친구를 통해 피구의 경기 비디오 테이프를 입수했다. 프리킥의 달인, 피구를 통해 단지 킥훈련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비디오를 되풀이해서 보자 그의 빠른 측면돌파와 현란한 개인기가 눈에 잡히기 시작했다. 들어가고 나오는 방향이 규칙적인 궤도를 그리고 드리블도 일정한 습관이 있었다. 집중마크를 하면 플레이를 제대로 못하는 단점도 잡아냈다.

송종국이 이번 독일월드컵에서는 프리미어리그 3회 연속 득점왕, 세계 최고의 공격수 프랑스의 티에리 앙리(Thierry Henry)를 잡고 싶다고 주저없이 말했다. 프랑스를 이기겠다는 의지가 내비쳐진다. 그는 한국팀 16강 진출의 해법을 알고 있는 선수임에 틀림없다.

송종국의 투지처럼 프랑스를 이기지 않고는 한국엔 16강은 없다. 토고는 무조건 이겨야 하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 그 다음 경기에서 프랑스를 꺾어야 한다. 소위 전문가들이 프랑스와는 비기는 경기를 주문하고, 스위스를 잡는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다. 스위스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 먼저 프랑스를 꺾어야 한다. 비기는 경기가 어디에 있는가, 비긴다고 맘먹는 순간 이미 진것이다.

시급한 것은 프랑스전 승리를 위한 비책인데 앙리를 울릴 전술은 강력한 마크다. 사실 '앙리를 잡을 수비수는 지구상에 없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는 뛰어난 선수다. 이 때문에 송종국도 왕도가 없다고 말했다. 심하게 붙으면 신경질을 내는 그의 성향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거칠게 붙다 보면 방법이 생길 것이라고 막연한 표현을 썼다.

거칠게 부딪치면 승산있어

그러나 송종국과 아드보카트는 4년전처럼 이미 앙리에 대한 분석을 마쳤을 것이다. 1대1 마크가 부족하면 협력수비를 하고, 공 배급처인 지네딘 지단까지 묶는 방안을 찾아 놓았을 것이다.

히딩크도 강한 축구를 주문했다. 그는 "프랑스는 상대가 강하게 나올때 당황하거나 제 페이스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했다. 강하다고 수비에 치중하거나 주눅이 든다면 고전할 수 밖에 없고 철저히 압박하고 거칠게 부딪치면 승산은 있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이방인'의 작가 알베르 카뮈가 남긴 명언도 새길만하다. 대학시절까지 축구 골키퍼로 활약했던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공은 누군가 오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축구를 통해 배웠다"고.

태극전사들은 프랑스전에서 그라운드에 쓰러질때까지, 공이 오는 길목을 창의적으로 찾아 뛰어야 한다. 그래야 라이프치히의 아름다운 승리를 만끽할 수 있다.

〈체육부장〉 kihh@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박 행 순

지자체선거와 솔로몬의 지혜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솔로몬의 재판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한집에 사는 두 여인이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불행히도 한 여인이 잠결에 자기 아이를 덮쳐서 죽자 옆에 있는 아이와 바꾸어 놓았다.

아침에 품에 있는 죽은 아이를 자세히 보니 자기 아들이 아닌지라 두 여인은 살아있는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다투다가 도저히 해결을 볼 수 없어서 결국 솔로몬 왕에게 갔고 왕은 냉정하게 아이를 칼로 나누어 반쪽씩 주라고 판결한다.

친어미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청하기를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하고 다른 여인은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고 한다. 친어미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소서"하고 다른 여인은 두말없이 좋다 할 터이니 합의를 본 셈이다.

솔로몬의 재판이 유명한 이유는 계략을 써서 친어미를 알아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양자의 합의, 그런 원만한(?) 해결을 제쳐두고, 포기하겠다는 친어미의 품에 기어이 아이를 안겨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재판관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아니었다면? 둘로 공평하게 나누자는 주장이 그럴싸해서 아이를 둘로 나누었다면? 혹은 재판관이 두 사람의 합의에 따라 판결을 했다면? 혹은 나는 모르겠으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두 여인을 쫓아냈다면? 아이의 장래는 어찌 되었을까?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솔로몬의 재판과 그의 지혜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유권자는 재판석에 앉은 솔로몬 왕처럼 재판의 전권을 쥐고 아이의 장래를 위하여, 그리고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판결을 내려야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공평하게 둘로 나누어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 목소리가 크다고 친엄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은 투표를 포기하는 것이다. 나는 모르겠으니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며 아이와 두 여인을 밖으로 내쫓는 솔로몬을 상상할 수 있는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자세로 후보들을 살피고 양심껏 판단하여 한 표를 행사해야만 한다. 그리고 선거후에는 옳은 판결을 내렸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솔로몬은 친엄마를 찾아내는 그런 재판을 일생에 한번밖에 안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친엄마를 가리는 일을 해야 하므로 이번 재판에 설령 실수를 했다할지라도 다음에는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매 선거 때마다 배워야 한다.

유권자는 선거 때는 재판장이지만 선거후에는 바로 그 아이가 된다. 그러므로 투표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사인 것이다.

오늘도 출근길에 몇 장의 후보자 명함을 받았다. 버리지 않고 뒷면의 이력을 꼼꼼히 훑어보면서 누가 친엄마일까 고민해본다.

〈(사)광주전남 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회장·전남대학교 약학대학교수 2005년 10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 입니다.

기 고

양 규 성

친환경농업이 농촌 공동체의식 되살린다

농촌은 비단 먹을거리만 생산하는 곳이 아니다. 인류의 정착생활이 최초로 잉태된 곳이며, 인간에게 자연을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육장이며 현대인에겐 어머니 품과도 같은 안식처 이기도 하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콩을 심을 때에도 한 구덩이에 세알씩 넣었다. 비를 뿌려주고 햇빛을 비추어 하늘이 도와주니 하늘에 나는 새가 먹으라고 한 알, 따뜻하게 품어 무럭 무럭 자라게 해주고 땅속 밭을 갈아 숨구멍을 터주게 해주니 땅속 벌레가 먹으라고 한 알, 심고 가꾸고 애쓴 사람이 먹으라고 또 한 알. 이렇게 해서 모두 세알씩 심었다고 하는데 우리조상들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에 고개가 숙여질 뿐이다.

자연과의 조화가 그러하듯 우리 농촌 전통문화는 농촌특유의 연대감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구심점이 되어 발전했다.

서로 협력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풍습으로 '두레'라는 조직이 있었고, 마을 주민간의 상부상조를 위해 '계'(契)가 있었으며,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을 지고 갚고 하는 '품앗이'제도와 추수가 끝난 초겨울에 마을사람들이 모두 나서 볏짚으로 이엉을 엮고 지붕을 이어주던 농촌의 미풍양속들이 엊그제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농촌은 지금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는 와중에 UR이후 DDA나 FTA에 맞물려 개인중심 가치사회가 만연해 그동안 농촌사회를 떠받들고 있던 공동체가 서서히 해체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전남도가 친환경농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우렁이, 메뚜기, 미꾸라지 등 생태계의 복원 못지 않은 반가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다름아닌 농촌 공동체 회복이 그것이다.

친환경농업의 특성상 최소한 골짜기 단위나 들녘단위로 공동작업을 함으로써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영농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상호 협력과 공동판매에 따른 시장 교섭력이 증대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해 낸다는 의무감, 그리고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친환경농업에 대한 자신감 등이 한데 어우러져 농촌공동체 회복의 토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옛날 농경사회의 전통적 공동체와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르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은 단순히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산업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가치로 한 현대적인 농촌 공동체 의식이 복원되어 우리 농촌이 도시민의 안식처로 거듭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우리 전남도는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을 통한 안전한 먹을 거리 생산과 농촌공동체를 복원할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농촌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명산업의 전초기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

5·31 지방선거는 지역주의 아닌 후보의 능력을 봐야

지방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주의 불패 신화가 깨져야 한다.

지역과 학벌 연고가 우선해서는 올바른 민의의 대변자를 뽑을 수 없게 된다. 지역주의를 등에 업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현상이 이 번 지방선거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반대급부를 겨냥한 지역주의는 분열과 갈등을 가져올 뿐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치적 신념과 능력을 후보 선택의 잣대로 삼아 새로운 정치 풍토를 바꿔나가야 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지역주의에 의지하려는 생각부터 끊어야 한다. 또 '남'을 지역주의의 포로로 보기 전에 '나'에게 숨겨져 있는 지역주의 편견을 깨부수려는 자기 성찰이야말로 지역 주의란 의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출발이다.

▲김영균·광주시 동구 지산동

보호관찰 시스템 강화 범죄예방 시급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테러를 가한 지모씨는 보호관찰 대상자였으나 당국이 거주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대표를 공격한 지씨는 한 보호감호소에서 깨진 유리로 교도관을 공격하기도 했다고 한다.

당국의 허술한 보호관찰자 관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

보호감호 가출소자 등은 3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돼 있으나 인원 부족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권한이 제한된 것도 문제라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이제라도 보호관찰 시스템을 강화해 이들의 범행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성은·광주시 북구 운암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사 설

집값 잡기에 시민단체까지 동원하려는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2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정책 성패는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조직적 공격 세력과의 전쟁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민사회 차원의 또 다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실장은 복부인과 기획부동산업자, 건설업자, 일부 주요신문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4대 공격 세력으로 규정했다.

김실장의 기고문은 집값 잡기에 시민단체가 나서줄 것을 은연중 부추기고 있다. 한달에 한개 꼴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세금 폭탄을 퍼부어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자 아예 시민단체를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책임을 이른바 '부동산 4적(敵)'에 떠넘겨 이들과 맞서도록 시민단체를 동원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코드에 맞는 지지세력을 결집해 특정대상에 대한 증오를 키우는 '증오 마케팅'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국민을 편가르고 대립과 갈등으로 내모는 것은 사회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경제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 이미 일부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조정 장세가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관국에 시민단체가 시위라도 벌인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을 시민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지금 시급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버블 붕괴를 확신한다면 국민경제에 미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현실과 유리되지 않고 시장원리에 충실한 정책만이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제는 이념 논쟁이나 시민여론몰이로 해결될 수 없다.

J프로젝트, 투자매력 키울 필요있다

전남도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사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가 뜻같지 않다는 소식이다. 수조원이 들어갈 이 사업의 종잣돈으로 5천억원을 끌어모으기로 한 민간 투자회사가 계획한 시간까지 투자자들을 모으지 못한 것이다. 전남도로서는 당초 시한을 늦추는 수밖에 없게 됐고 총 자본금 1조5천억원으로 설립되려던 J프로젝트 추진법인체도 당초 설립예정시점이던 6월에서 한참 더 뒤로 밀쳐지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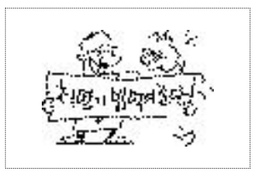
기업의 투자결정은 냉엄하다. 전남도는 5천억원을 펀딩하기로 한 CJ자산운용측이 만약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전남도가 그 돈을 물어준다는 내용의 조례까지 만들며 원활한 자금형성을 도모했지만 CJ자산운용은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J프로젝트 투자를 끌어내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의 3천만평을 무대로 한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기업들은 이 청사진이 현실화 된다는데 낮은 점수를 주고있다는 얘기다.

대기업들은 투자기피의 이유로 구체적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원론적 이유 외에 내국인 카지노설립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시장성이 불확실한 휴양·레저시설보다는 국내외 관광객 유인효과가 확실한 카지노를 투자 선결조건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를 'F-1 특별법'으로 해결하고자 주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낙관은 아직 이르다.

우리는 J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철저히 시장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본다.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 인허가는 물론 물류와 SOC등에서 다른지역과 확실한 차이를 보이는 투자매력을 먼저 키워야 한다. 전남도의 분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無 等 鼓

체면 산업



중세기 전쟁 이야기 중 로랑 장군 이야기가 있다. 로랑은 프랑스의 황제 샤르 마뉴 대제의 12용사 중 한 사람. 로랑은 무어인과 전쟁 때 상대에게 포위당한 상황에서도 체면만을 생각한 나머지 부하들이 전멸하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구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

중국인들도 체면을 중시하긴 마찬가지. 주나라 서자 불사이군을 외치면서 수양산에 들어가 굶어 죽기를 자청했던 백이와 숙제도 사실은 체면 때문이었으며, 유방에게 패주를 거듭하던 항우도 도망치면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체면 때문에 자결을 선택했다.

중국인들의 체면중시 풍조는 지금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중국말중에는 체면차리라는 쭈오미엔즈(作面子), 남의 체면을 세워준다는 게이미엔즈(給面子) 등 체면에 관한 말이 수 없이 많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이러한 중국인들의 체면의식을 이용해 중국시장 돌파구를 찾고 있기도 하다.

체면에 관한 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둘째가라면 서러워 한다. '냉수 마시고 이 쑤신다,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은 안 친다' 등 수많은 속담이 우리 조상들의 체면 중시 풍조를 대변해주고 있다.

그런데 요즘 체면과 관련된 사람들의 의식을 이용, 돈을 버는 이른바 '체면 산업'이 뜨고 있다 한다. 퇴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런 업종에는 모임 참석 때 고용하는 1일 운전기사에서 여성의 아릿다운 목소리만 빌리는 '전화 목소리 비서', 바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특정 시간대에 전화를 해주도록 하는 특별 전화서비스업 등 다양하다.

또 수입차와 명품, 미술품을 일정기간 빌려주고 교체해주는 대여업은 물론 심지어 결혼식장 하객까지, 체면을 살리는 도구라면 무엇이든 빌려준다. 이런 업종은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느는 등 더욱 번성하는 추세다.

체면을 아주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게 산업으로까지 발전하는 세태가 씁쓸함만 더해준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鎬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29 정 치 부 2200-616 경 제 부 2200-617 사 회 1 부 2200-618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F A X 222-8005〉 광 고 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사 업 2 부 2200-552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